

일 주 문



문화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은 3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제4회 불교문화디지털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선지식 고승대법회 봉행
부산 동명불원 주지 정산 스님은 4월 6일 지한 스님을 초청해 초하루 선지식 고승대법회를 봉행한다. (051)624-7667



아미타부처님 이운법회
경주 자비마을 자운사 주지 혜연 스님은 4월 5일 오전 10시 아미타부처님 이운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전통차집과 사찰음식점도 문을 연다. (054)746-7026



기초불교 영아강좌 개강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강명성 회장은 4월 12일부터 열리는 제9기 기초불교 영아강좌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02)722-2206

“문중화합·포교활성화에 앞장설 것”

법주사주지 노현 스님



고 자신의 잣대로 상대를 평가하지 않으면 대중화합은 절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주사 말사와 사설사업이

70여 곳 정도 되는데 인사문제는 논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고사찰이 아니라면 주지소임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말했다.

연간 150만 명에 달하던 법주사 관광객이 최근 50만 정도로 급감해 문화재관람료 수입이 줄어들며 대해서는 “살림이 무척 어려운 형편이지만, 지역은 물론 전국을 상대로 포교활성화에 나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조계종 총무원 1층 로비에서 ‘총무원장 용퇴’를 주장하며 단식을 진행했던 노현 스님은 “총무원으로서 현안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총무원에 대한 답답한 마음으로 단식을 한 것이지 절대 이권에 의한 것이거나 주지출마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지금도 그 결정에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스님은 “(단식도) 순수하게 한 것이고 앞으로 법주사를 이끌어 가는 힘도 순수”라며 “거짓 없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는 문중을 화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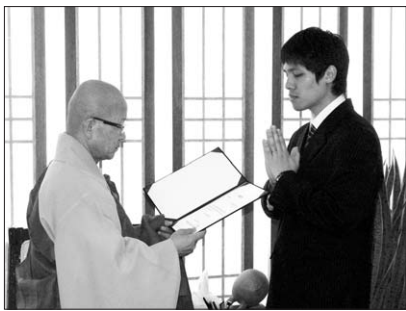
노현 스님의 주지진신식은 4월 25일 치러질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포교활동에 전념 할 것”

포교원 대불련 김정현 회장에 장학금 전달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3월 26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전국대학생불



자연협회(이하 대불련) 김정현 회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대불련 제46기 회장으로 지난 12월 취임한 바 있는 김 회장에게 장학금 150만원을 전달하며 “불법에 의지해 신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모든 대학생 불자들을 잘 이끌어 불법 흥보 역할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학금을 받은 김 회장은 “오늘 장학금 수여는 포교활동에 진념하라는 의미로 알고 감사하게 받겠다”고 인사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지난 2월 포교원 지원금으로 만든 대불련 알뜰 포스터와 홍보책자 등을 포교원장 스님에게 보고하며 “포교원의 도움으로 전국 대학교에 대불련을 알리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 말했다.

이에 혜총 스님은 “포교원 대불련 실무 담당팀인 어린이청소년팀과 잘 논의해 대학생불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서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포교원장 혜총 스님, 포교부장 동범 스님, 포교연구실장 도신 스님, 포교국장 탁조 스님, 신도국장 재안 스님, 사무국장 정수 스님과 포교원 직원들이 배석했다.

김강진 기자

“지역사회와 호흡할터”

서울 무량수전 개원한 종연 스님

“정법을 널리 펼치는 도심 포교원을 열고 싶습니다. 서울 양평동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포교원으로 가꿔가도록 힘쓰겠습니다.”



3월 30일 서울 양평동에서 포교원 ‘무량수전’ 개원법회를 봉행한 종연 스님(경인불교대학 수미정사 회주)은 이번 서울 도심 포교원 개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스님이 개원한 양평동 포교당 무량수전은 3층 건물에 약 660㎡ 건평으로 1층 대법당, 2층 관음전과 요사채·대중방, 3층 공양간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다.

스님은 “건물 전체 리모델링 비용이 약 6억 정도 드는 큰 공사였는데 원력 있는 거사님들이 익명으로 재정을 총담해주셔서 여법한 포교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포교원 무량수전에서 특히 양평동 주민들과의 유대관계에 무게중심을 둘 생각이다. 스님은 “양평동 지역이 공장지대고 포

능혜당 명환대종사 영결식 26일 엄수

능혜당 명환대종사가 3월 24일 오후 6시 주석처인 동해삼화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50세, 세납 71세.



영결식은 26일 삼화사에서 조계종 제4교구장으로 엄수됐다. 명환대종사는 1938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1958년 부산 금정사로 출가했다. 1959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경월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67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4년 해인총림 안거 이래 20년간을 성만했다. 조계종 재무부장과 중앙총회의원 5선을 역임했다.

여수령 기자

교원 주변에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인불교대학 수미정사에서 지금까지 지역사회 봉사를 해왔던 노하우를 살려 이 지역에서도 제대로 해볼 생각”이라 밝혔다.

또 2층 관음전에는 불교대학을 개설, 포교원을 신·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지역주민들이 불법(佛法)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백고좌, 고승법회, 타지역 사찰 영상법회 등의 굵직한 행사들도 스님은 기획하고 있다.

“산중선방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을 위한 포교원도 무척 중요합니다. 흔히 ‘포교원’하면 사법을 행하는 곳으로 인식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포교당 무량수전에서 정법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종단내외에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3월 30일 진행된 개원법회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의 법어, 건강의식, 종사이운식 등으로 여법하게 봉행됐다.

김강진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후원 계좌 : 083-25-0008-365 국민은행 (예금주 (주)에이치비앤씨)

제3회 찬불을동제 열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송욱)는 3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제3회 찬불을동제를 진행했다. 전국 11개 사찰 200여명의 어린이가 참여, 경합을 벌인 이날 대회에서는 서울 육전임이 최우수단체상을 수상했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송욱 스님은 “어린이들의 기량이 날마다 발전하고 있어 반가운 마음이며 더 많은 사찰의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불자 꿈나무 역도선수에게 장학금 전달



대한불교조계종 불자 체육인 연합회 전북지부(지부장 김도영)는 3월 21일 전북 불교회관에서 불자 체육인 학생 박세종(전주 용수중 3·역도)군에게 불자체육인 장학금 150만원을 전달했다. 장학금을 전달한 김상사 주지 원형 스님은 “열심히 정진해서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여 국가와 불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동량이 되어 달라”고 격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근본 해동종 창종 10주년 법회 봉행



한국불교근본해동종(총무원장 정일)은 3월 26일 충주 이화예식장에서 창종 10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혜우 스님을 비롯해 중정협의회 지산 스님, 종단총연합회 의문 스님과 종단원인 및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정일 스님은 대회를 통해 “화합을 우선으로 중추종단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으며, 종정 혜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화합을 최상의 목표로 세워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조계종 호법부 조사국장에 보림 스님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조사국장에 안산 보문선원 주지 보림스님이 3월 26일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집결실에서 보림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보림 스님은 성종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4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1년 송광사에서 범음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소속 본사는 법주사이며, 안산 보문선원 주지로 지역포교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펼쳐 왔다. 여수령 기자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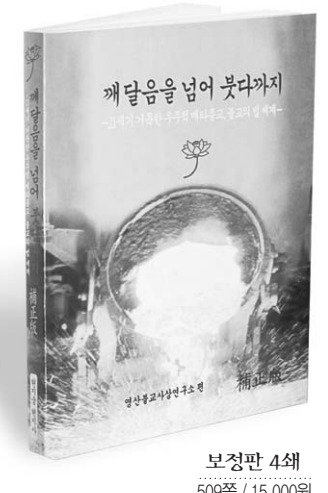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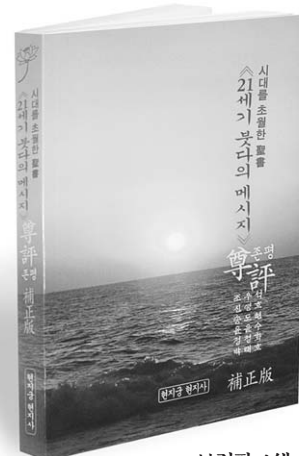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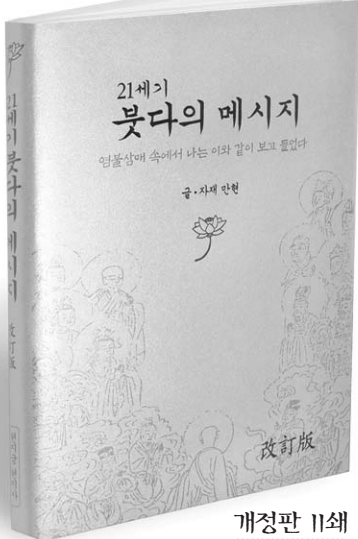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이 책은 모든 호법선신이 옹호할 것이며, 성종과 나한이 삼계팔난을 제거할 것이다. - 불세존 말씀 -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존평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尊譯”

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위대한 이 시대의 고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의 생사관에 대한, 네 영체에 관한, 그리고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의 큰 스님 법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 ○ ○의 설명으로는, ○ 불교의 교의로는 도대체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저 살았다고 해야 할까..... 나는 이제 현자 스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뚜렷이 알게 되어 매일 매일 보람을 창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 세 권의 미증유한 성서를 꼭 필독해보시기 바란다. - 지방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